

‘핵타선’ KIA, 현실은 희생번트 1위

김기태 감독 부임 후 ‘화끈한 강공야구’ 펼쳐
올해 타선 전체 ‘슬럼프’...득점 공식 안돌아가

KIA 타이거즈 타선에 색다른 지표 하나가 생겼다. 희생번트 13개로 두산과 함께 공동 1위이다. 김기태 감독이 부임한 이후 희생번트 1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은 79개로 4위였다. 1위는 139개를 기록한 한화였다. 2016년은 66개로 5위, 2017년 55개로 8위였다.

그만큼 김기태 감독은 번트를 선호하지 않는다. 적어도 중반까지는 타자들에게 맡기고 강공책을 펼친다.

그 결과 작년에는 팀 타율(.302)과 팀 안타(1554개) 신기록, 3할 타자 신기록(7명), 팀 득점 역대 2위(906점)의 기록을 세우며 핵타선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한커리로 화끈한 강공야구를 펼쳤다.

올해로 핵타선이 그대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의 3할 타자들이 모두 재가동했고 정성훈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개막 이후 타선이 침체

에 빠져있다. 김선빈(.250), 이명기(.235), 나지완(.245)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버나디나(.237) 이어 김주찬(.304)까지 슬럼프에 빠져있다.

타율은 2할8푼2리로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득점력(102점)이 5위까지 밀려나왔다. 그만큼 득점 공식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2017시즌 득점권 타율은 3할2푼4리로 월등하게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2할6푼8리로 7위에 머물러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13일 롯데와의 광주경기에서 7회말 무사 2루에서 네 타자 연속으로 희생번트 작전까지 나왔다. 상대 수비실책이 2개가 나오자 연속 번트 작전을 구사해 2점을 추가했다. 마치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듯 했다.

하위타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작전이었지만 KBO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희생번트 1위는 그만큼 타선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지표이다. 결국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주전 타자들이 살아나고 특유의 응집력을 되찾아야 득점력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득점권 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KIA 핵타선의 속세가 많다.



광양시 육상팀, 한국실업육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김한솔 10000m · 신동민 110m허들서 각 銀 획득

정현복 광양시장이 한국실업육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초청해 격려했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3일간 전남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대회에서 광양시 육상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 직장경기부 육상팀은 멀리뛰기, 10000m, 100m허들 등 12개 종목에 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 결과 10000m 부문에서 김한

솔 선수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신동민 선수도 110m허들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 총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한국실업육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초청해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손흥민, 한달만에 도움으로 공격포인트

시즌 최다 타이

손흥민(26·토트넘)이 한 달 만에 도움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타이틀을 기록했다.

18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튼의 에이맥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알비온과의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에서 선발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도움을 올려 토트넘의 1-1 무승부에 일조했다.

0-0으로 팽팽한 후반 3분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제친 손흥민은 해리 케인에게 패스해 선제골을 도왔다.

리그 5호 도움이자 시즌 10번째 도움이다. 지난달 12일 본머스와의 30라운드에서 2골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기록한 공격포인트다.

이날 도움을 추가한 손흥민은 시즌 공격포인트를 28개로 늘렸다. 18골 10도움이다. 지난 시즌에 세운 최다 공격포인트와 같다. 지난 시즌에는 21골 7도움을 올렸다.

시즌 종료까지 약 1개월이 남아 기록을 갈아치울 게 유력해 보인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며 아래로 내린 브라이튼 앤



드 호브 알비온 수비가 탄탄했다. 토트넘이 공세를 펼쳤지만 골문을 열기 쉽지 않았다.

0-0으로 전반이 끝났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케인의 선제골이 나왔다. 손흥민의 도움이 시작이다. 상대 공격이 끊기며 역습 기회를 잡았고 손흥민은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쳐 케인에게 패스했다. 케인이 가볍게 골로 연결했다.

상대 엔드라인 부근에서 운이 따랐지만 넘어지면서도 동료를 살핀 손흥민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유람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99를 줬다. 토트넘의 필드 플레이어 중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골을 기록한 케인이 7.70점을 받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2분 만에 실점하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토트넘은 승점 1 획득에 그쳤다. 20승 8무 6패(승점 68)로 3위 리버풀(승점 70)과의 승점 차는 2로 좁혔다.

류현진 “타자 압도하는 투수 아니다, 제구가 무척 중요”

로버츠 감독 “모든 공 제구 다 잘됐다” 칭찬



2경기 연속 패투를 선보인 류현진(31·LA 다저스)이 자신의 투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3피안타(1홈런)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다저스의 10-3 승리에 앞장선

류현진은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6이닝 동안 안타 1개, 볼넷 1개만을 내주며 무실점 투구를 선보여 첫 승을 수확했다. 당시 삼진을 무려 8개나 잡아냈다.

이날도 류현진은 9개의 삼진을 속이내며 빼어난 투구를 선보였다.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경기 후 류현진은 “오늘 등판에서 팀 승리에 도움이 돼 무척 기쁘다”며 “전반적으로 좋았다. 날 말하듯 나는 타자들을 압도하는 투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구가 무척 중요하다. 2경기 연속 8개 이상의 탈삼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구가 잘 된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경기 연속 호투를 선보인 류현진을 향해 현지 매체들도 “2015년 여겨 수상을 받은 류현진이 수승이었던 2013~2014년의 모습을 되

찾았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지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다”고 되돌아봤다.

이날 류현진의 승리에는 타선의 도움도 컸다. 류현진이 2회말 크리스티안 빌라누에바에 역전 투런포를 맞은 뒤인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냈다. 특히 맷 켈프는 좌중월 3점포를 쏘아올려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9회에는 아스나니 그랜달이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작렬했다.

류현진은 “오늘 같은 경기는 팀 동료들 도움이 컸다. 이런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3회 타선이 5점을 뽑아준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변화구와 직구 모두 제구가 잘 됐고 컷 패스트볼이 무척 좋았다”며 “6회까지 소화한 것도 보기 좋았다”고 칭찬했다.

뉴시스



오승환, 6일 만에 등판 1이닝 무실점 첫 홀드

6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무실점 피칭으로 시즌 첫 홀드를 따냈다.

18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 6회초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팀의 리드를 지켜내며 11-3 완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즌 첫 홀드와 함께 평균자책점은 3.00에서 2.57로 낮췄다. 5-9으로 앞선 6회초 선발투수 하이메 가르시아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출격했다. 지난 12일 볼티모어전 이후 6일 만의 등판이다.

선투타자 호르헤 솔레어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고 출루이 다소 불

안했지만 체슬러 커스버트를 3루 땅볼 처리하며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1루에 있던 솔레어는 2루로 옮겼다.

1사 2루 실점 위기에서 파울러 올랜도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운 오승환은 알사레스 에스코바 마저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쳤다.

투구수 19개 중 스트라이크가 14개로 공격적인 피칭이 돋보였다. 최고 구속은 92.8마일(약 149km)을 기록했다. 오승환이 리드를 지켜내자 이어진 공격에서 토론토 타선이 폭발했다. 대거 6득점하며 11-3으로 여유 있게 앞섰다.

2연승에 성공한 토론토는 10승 5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 자리를 유지했다.

‘기록 제조기’ 이동국, K리그1 7R MVP

최고 골키퍼, 대구 조현우 영예

‘불혹의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이 KEB하나은행 K리그1(클래식) 2018 7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이동국은 14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7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풀타임을 활약했다. 후반 13분 전남 최재현의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후반 추가시간 이용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넣어 멀티골을 기록했다. 덕분에 전북은 전남을 3-0으로 완파했다.

K리그 통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국은 2015·2016골을 연달아 넣어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이동국과 레오 오기발류(포항)가 뽑혔다. 이재성(전북)-김종우(수원)-이창민(제주)-로페즈(전북)가 미드필드진을 형성했고 이용강(수원)이 골키퍼 영예는 조현우(대구)에게 돌아갔다.

KEB하나은행 K리그2(챌린지) 2018 7라운드 MVP로는 성남 서보민이 선정됐다.

오타니, 제구 난조...보스턴전 2이닝 3실점 첫 ‘패전투수’

시즌 3승에 도전한 오타니 쇼헤이(23·LA 에인절스)가 리그 최강 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혼쭐이 나며 시즌 첫 패전 투수가 됐다.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보스턴과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이닝 4피안타(1홈런 포함) 2볼넷 3실점했다.

팀이 1-10으로 완패하며 2승 뒤 첫 패배를 안았다. 평균자책점은 3.00으로 치솟았다.

지난 9일 오클랜드전 이후 9일 만에 마운드에 선 오타니에게 이날 경기는 박리교 데뷔 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였다.

당초 16일 캔자스시티와 경기

선발 등판 예정이었으나 혹한으로 경기가 취소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더욱이 상대는 리그 최고 승률을 자랑하는 보스턴으로 바뀌었다.

앞선 2경기에서 초반부터 상대 타자들을 압도한 오타니지만 이날은 달랐다. 100마일에 육박하는 빠른 공은 여전했지만 공을 원하는 곳에 던지지 못했다.

변화구 컨트롤에 애를 먹으면서 볼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해졌다. 2회까지 6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스트라이크 3개, 볼 3개로 제구가 매우 불안정했다. 손끝 감각이 무뎠던 듯 공을 땅에 패대기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있었다.

뉴시스